

가깝고도 먼 사찰, 도심 속 성지에서 '법향'을 만나다



조계사 봉축연등은 순례단의 환희심을 자아냈다.



법정 스님의 진영과 유물이 모셔진 진영각에서 차분히 앉아 스님의 무소유정신을 되새기는 순례단의 모습



법정 스님의 유품을 유심히 보는 순례단원들



길상화 보살 추모비 앞에서 설명을 듣는 순례단원들



호박주스 한잔은 종교간 벽을 허물기에 충분했다.



회계사에서는 잠시 입정에 들기도 했다.

청계사 108선원 순례단, 해제 기간 사찰 순례

서울 조계사·길상사·경국사·흥천사·청량사·화계사

의왕 청계사(주지 성행)는 4월 22일 서울 조계사와 길상사, 경국사, 흥천사, 청량사, 화계사를 참배하는 제3회 '마음따라향기법문 108선원순례'를 개최했다.

이날 순례에는 순례단 단장 성행 스님을 대신해 성연 스님이 지도법사로 참석했으며 자연 유경의 순례단 회장 등 단원 28명이 함께했다. 제2회 108사찰과 선원 순례는 4월 15일 방생법회를 겸해 백전사에서 진행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산에 들며 들꽃들이 만개한 4월 봄날, 108사찰과 선원 순례단이 북한산 자락의 도심사찰로 순례길을 나섰다. 지난 1월 불국사 등 신라고도 경주로 첫 순례를 떠난지 다시 100일만의 순례였다. 하얀 벚꽃과 비슷한 새하얀 순례복을 맞춰 입은 28명의 순례단원들은 화창한 날씨 속에 발걸음도 가볍게 사찰 순례를 진행했다.

'마음따라향기법문 108선원순례'는 안거기간에는 선원을 중심으로 순례가 진행되며 안거 해제 이후에는 사찰 위주로 순례가 진행된다. 이번 순례는 의왕에서 가까우면서도 쉽게 찾지 못했던 서울 서북부의

고찰들을 둘러보는 여정이 이어졌다.

고령의 순례단원을 제외한 대부분이 평소 찾지 못한 사찰들이었다. 이른 아침 가장 먼저 찾은 사찰은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였다. 조계사는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한창 연등을 만들고 다느라 분주했다. 바쁜 와중에도 조계사 호법국장 서승 스님은 조계사를 대표해 순례단을 반갑게 맞이했다.

"조계사는 1910년 조선시대 이후 사대문 안에 최초로 창건된 사찰입니다. 각황사를 지금의 위치에 옮겨 짓고 삼각산에 있던 태고사를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여 태고사라고 하다가 1955년 조계사로 이름 붙여졌습니다."

순례단 단원들은 귀를 중국세우고 스님의 설명에 열중했다. 조계사 대웅전에는 여느 사찰과는 다른 사각등과 대형등 등 특이한 등들이 달려있었다.

순례단원들은 조계사 연등을 보며 감탄을 도했다. 조계사 대웅전과 극락전을 참배하며 순례일정을 부처님께 고한 순례단원들은 버스를 타고 다시 길을 나섰다.

도심길을 달린지 몇분이 지나자 봄꽃들이 피어난 북악산이 순례단을 반겼다. 북악 스카이웨이를 따라 꽃구경도 잠시 길상사가 살포시 보였다.

길상사에서는 흥경근 맑고향기롭게 사무국장이 길상사의 유래와 역사에 대해 안내했다. 자신이 있음으로 인해 주지나 여러 대중이 반갑게할 것을 우려해

법정 스님이 단 한번도 묶여간 일이 없었던 길상사 진영각(전 행지실). 법정 스님이 입적 전 마지막으로 묶었던 이 곳이 대중들에게 공개됐다. 진영각은 올해 3월에야 공개된 곳이다.

순례단원들은 법정 스님의 진영과 유물이 뿌려진 곳과 스님이 강원도 수류산방에서 쓰던 유품과 스님의 저서 등을 보며 평소 스님이 강조한 '무소유' 정신을 다시금 되새겼다.

배내장 수술 이후 관리 기간임에도 순례에 나선 정

조계사서 봉축 등보며 환희심

법정 스님 무소유 정신 마음에 새겨

흥천사 문제 심시일만 돕기도

회계사서 유쾌한 해설들으며 회향

각심 보살은 "눈이 아파도 조금이나마 건강할 때 많이 다녀야겠다는 생각에 동참했다"며 "예전에 젊었을 때 다녔던 기억이 떠오르니 더 좋다"고 말했다.

흥경근 사무국장은 길상사를 보시한 김영환 보살(길상화)과 시인 백석과의 사랑이야기를 풀어내 순례단원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김영환 보살은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해 16살 때부터 기생이 되었지만, 문학에 큰 재능을 보여 수필도 발표하며 유명했었습니다. 젊은 시인 백석을 본 순간 들은 한눈에 사랑에 빠집니다. 당시 백석의 나

이는 25세, 김영환 보살의 나이는 21세였습니다. 백석은 '자야오가'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을 보고 김영환 보살에게 자야라는 아호를 지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들이 기생과 살림을 차린 것을 못마땅해 했던 백석 부모의 반대로 백석은 다른 여자와 결혼하며 결국 만주로 떠나게 됩니다. 김영환 보살은 자신이 기생 출신이었기에 못이룬 사랑에 한이 맺힙니다. 평생 쓰지않고 모아 이룬 것이 바로 길상사 전신 대원각이었습니다. 말년에 김영환 보살이 입적하시기 전 묶었던 곳이 자야현입니다. 평생 백석을 잊지 못한 것입니다."

순례단원들은 이들의 애뜻한 사랑에 안타까움과 부러움을 함께 표했다. 이날 길상사에는 평소 종교간 소통과 화합을 중요시한 법정 스님의 뜻을 기리기 위한 수녀님들의 방문도 이어졌다. 순례단은 수녀님들과 쟁쟁한 다과를 함께 먹으며 담소를 나눴다.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여주에서 왔습니다. 수련기 수녀님입니다."

"불교에서는 정식 승려가 되기 전을 사미, 사미니라고 합니다. 깃에 붉은 동정을 단 스님들입니다."

"네, 불교는 이렇게 순례하는 재가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단복도 맞춰입고 보기 좋습니다."

맛있는 호박주스 한잔은 종교의 벽을 허물기에 충분했다.

다시 길을 나선 순례단은 前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주석처였던 경국사를 둘러보고 흥천사에서 점심공양을 진행했다. 흥천사는 최근 분규사찰이었던 것을 조계종에서 인수한 사찰이다. 때문에 아직 정비가 되지 않은 곳들이 많았다.

자연 순례단 회장은 "흥천사 상황이 안좋다는 말

을 듣고 일부러 이 곳을 찾았다"며 "십시일반 모은 보시금이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열악한 사찰 상황으로 인해 공양도 관음전에서 진행됐다. 순례단원들은 자신이 먹은 음식그릇을 설거지 하며 일손을 떨었다.

순례단의 발걸음은 청량리에 위치한 청량사로 이어졌다. 현재 비구니 사찰인 청량사는 만해 한운은 스님이 머물기도 했던 곳이다. 신라말 창건된 곳으로 1987년 명성왕후의 묘인 흥릉이 조성되며 현재자리로 옮겨졌다. 비구니 스님들이 거주하는 사찰답게 정돈된 경내가 눈에 띄었다. 깔끔하게 다듬어진 화단과 풀밭은 순례단의 마음까지 차분하게 했다.

순례단이 끝으로 찾은 곳은 회계사였다.회계사는 외국인 스님들의 수행처인 국제선원이 있기도 한 곳이다. 이날 회계사에서는 외국인 수행과 템플스테이를 담당하는 회계사 연수국장 지오 스님이 순례단을 맞아 부처님 8상성도에 대해 재미있는 해설을 진행했다.

지오 스님은 "부처님께서 태어날 때 한순은 하늘을 한순은 땅을 가리키시며 외치신 천상천하유아독존이 현재의 싸이의 '젠뎀뎀'으로 다시 나타냈다"며 "한국인도 외국인도 모두 손을 들고 외치는 그말,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말이 바로 부처님이 이렇게 오신 뜻"이라고 말했다.

순례단은 지오 스님의 해설에 이어 짧은 시간 참선과 소원지 소지의식을 진행하며 순례의 아쉬움을 모두 떨쳐버렸다.

선인행 보살은 "서울이 가깝지만 쉽게 못오던 곳"이라며 "순례를 통해 탐진치의 마음을 버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며 밝게 웃었다.

어떠이날 어르신들과 스님들께 올리는 최고의 효도선물

TDP 인체공명파 온열치료기 神燈

어르신들의 어깨, 목, 허리, 무릎의 만성적인 근육통 완화! (체온요법으로 건강 예방 증진) 아침 저녁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참기 어려운 통증, 잠을 자다가도 불쭙 갑자기 끊어지는 듯이 아프게 찾아오는 통증, 온몸 구석구석 아프지 않은 곳이 없는 고통, 지하철 버스 손잡이도 잠을 수 없을 만큼 아픈 팔, 어깨 근육 통증, 이제 걱정마십시오. 본 의료기기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체온요법이란?

오장육부를 알맞은 온도로 기능회복을 시키고, 인체 통합시스템인 면역계와 호르몬계의 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질병(환부)부위는 냉(冷)에서 비롯된 병적 부분을 온열요법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즉 특정파 광선조사기의 파장은 공명작용으로 피하심층까지 침투하여 손상된 세포조직이 활성화되어 건강은 물론 심신까지 안정화 시킵니다.

TDP 인체공명파 온열치료기 神燈 용도

- 1) 병의원 보조 치료기 (소염 진통 증상완화 - 혈류량 증가)
- 2) 구급치료기 (복통, 설사, 화상, 신경통 등 각종 통증 완화)
- 3) 신경안정화기능과 교통사고 후유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4) 관절결림의 감소와 연조직 고풍인압 감소 등 효율적 효과를 보여줍니다.

■ 상담 및 구입문의 :

수입총판 휴먼라이프 서울지사 02)739-5008

※ 종로구 수송동 두산위브 440호에 체험방 '운영중'에 있습니다.



CQ-BS8 (비이오레프)

CQ-31(TDP)

세계적인 명품 음이온 패드 & 생리대

세계 최초 특허제품 미국, 일본 등 전 세계 144개국 사용 중

이런분들께 적극 권장합니다.

- 여성 : 생리통, 월경불순, 요실금, 소변통, 각종염증, 치질, 변비
- 남성 : 허리통증 개선, 피부염, 전립선비대증, 어깨통증, 남습, 습진, 피로감 해소

음이온의 놀라운 8대 효과

항균작용, 통증완화, 냄새제거 면역력 강화, 피로감 해소, 내분비 개선, 신진대사 촉진, 염증예방



음이온 패드 생리대



음이온 마스크

위나라이트 코리아 종로지점

상담 및 문의 02)739-5008, 010-2353-2010 서울 종로구 수송동 두산위브 440호

삼보양초

삼보양초의 장점

- 1) 심지가 견고하며, 최고급의 파라핀으로 제작되며 그윽음이 적으며 오래 탑니다.
- 2) 냄새는 맑고 향기로우며, 촛뿔이 깨끗하고 투명하다. (최상품의 삼보향초)

삼보양초의 종류

- 1) 원기둥 홀초(대) 1박스 20개,9만원
- 2) 돈타레 홀 (중대) 1박스 40개,9만원
- 3) 밀대 (중) 1박스 50개,8만원
- 4) 등신불 (소) 1박스 40개,9만원

- 삼보양초는 중도사찰에 필수적인 물품들을 중도차원에서 공급하여
- 품질은 우수하게, 가격은 저렴하게, 주문은 편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불교용품상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택배비 포함)
- 전화로 주문하시든 택배로 바로 보내드립니다.

사업자번호 : 615-82-71773 (한국불교재단)
주 문 전 화 : 010-9421-0772, 010-5789-6630
사업부전화 : 농협 302-0587-1926-11 이창민

(사)대한불교삼보종 총무원 사업본부